

# ‘마음 산 · 골짜기’ 서 스승을 만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⑦ 마음 동네를 찾아서

나무꾼 의젓하게 스승 계산 곳 가리킨다.  
여기서 저쪽으로 7~80리 가면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 산(靈臺方寸山)'이라는  
산이 있고,  
그 속에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斜月三星洞)'가 있어.  
바로 거기서 신선 한 분이 제자들 가르치고 계신다네.  
후야, 이름도 이상한 곳에 사사네오.  
동네 이름처럼 이상한 분은 아니겠지?

이번은 확실히 잘 찾은 모양일세  
어떤 수행자가 올 것이니 마중가라 하셨다며  
기상도 맑은 동자가 나와 있구나.  
이끄는 데로 따라가 스승 뵈오니  
풍모도 멋있어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완연한 신선도사  
한 번 뵈오니 저절로 앞드러진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온다.  
'자부님! 자부님!'

스승도 기분이 좋다.  
원숭이 닮은 놈이지만,  
도를 구하는 정성이 눈에 보인다.  
흠, 기특하구나.  
그래도 어디서 온 누군지, 신상명세를 밝혀 보아라!  
뭐라고? 바다를 두 개나 건너왔다고?  
돌에서 태어나 성도 이름도 없나?  
어허! 하늘, 땅의 정기를 받은 놈이로구나.  
그래 그럼 내가 성과 이름을 주마.  
원숭이 닮았으니 손 (원숭이 손)자에서  
짐승을 뜻하는 일부분 떼고 손(孫)씨로 하고  
나 문해자 향렬 돌림자에 따라  
가운데는 오(悟)자로 하여  
이름은 오공(悟公)이라 하거라.

좋아라! 좋아라!  
천지를 부모로 삼은 이름  
성도 없고 이름도 없더니  
최고의 진리, 공(空)을 깨닫는다는  
앞날을 짐지하는 듯한 이름을 얻었네.  
기쁨에 가득 찬 원숭이 왕,  
이제는 이름도 어엿한 손오공!  
기쁨이 큰 만큼 각오도 세웁구나.

안녕하세요?  
저번 회에 소개드렸던 제 좌우명, '내일도 미룰 수 있는 일은 오늘하지 말자'에 감명받으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룰 때는 기분 좋지만, 미뤘던 내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시지요? 지금 제가 미뤘던 '손오공이 기가막혀' 원고 쓰느라 진땀 흘리고 있는 것이 그 살 아있는 예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기서 진땀 흘리며 달려오는 건 또 누군가요? 진짜 신선 도사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원숭이 왕이군요.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의 산' 속에 있는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찾아 가고 있습니다.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의 산'이라는 것과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 모두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령스런 누대'라는 말은 마음이 신령하여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오래 전에 이 말은 쓴 기록을 찾아 보니 (장자(莊子))라는 책의 '경상초' 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방 한치'라는 말도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의 좁은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촌(方寸)'이라는 말로 마음을 가리키곤 한 예들

### 나무꾼이 말한 스승 있는 곳

‘靈臺方寸山, 斜月三星洞’

모두 자신의 마음자리 의미해

### 스승 찾아 마음 골짜기에 이르니

동자 한 명이 원숭이 왕 인도한다

이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사방 한치 되는 사이에서 선과 악이 다룬다"는 식의 표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라는 말은 심(心)자를 깨뜨려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마음 심(心)'자를 연상해보세요. 점 세 개는 삼형제 별이구요. 비스듬하게 굽어서 뻗친 획은 바로 기운 달의 모습이요? 이런 것을 '글자를 깨뜨린다(破字)'고 합니다.

이 '마음 삼'자의 경우는 좀 특별히 글자의 모양만을 깨뜨려 본 것이고요.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지닌 글자들을 두 개, 세 개 모아서 다시 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글자를 깨뜨려서 의미를 풀기도 하고, 다른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호(好)'자를 깨뜨려 보면 '계집 여(女)'자와 '아들 자(子)'자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렇게 깨뜨려 보아서 '좋은 호'자의 의미를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푸는 거죠. 비슷하게 '편할 안(安)'자는 '여자는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편하다'고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깨뜨려 의미를 푸는 파자와는 반대로, 각각 의미를 가진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림 · 최주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개인과는 관계없는 철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역(周易)>의 괘를 보세요. 음(陰)사이 양(陽)이 끼어있는 괘는 三三 坎(坎)괘죠. 그런데 이 괘는 자연 속에서는 물(水)에 해당하고 험난함, 어려움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대로 양 사이에 음이 끼인 괘는 三三 이(離)괘인데 이 괘는 불(火)에 해당하며 빛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동양 최고의 고전인 <주역>에서도 여자 사이에 낀 남자는 어렵고 험난함을 겪는다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남자 사이에 끼인 여자는 빛나구요. 남자 사이에 있는 여자를 홍일점(紅一點)이라고 하는 것도 빛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반대로 여자 사이에 끼인 남자를 빛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아서도 제 주장이 틀림 없습디다.

실제 '女+男+女'라는 글자는 장난으로 요즈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닙니다. 자전에 보면 '계집이 사내 희롱할 요'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남자는 여자에게 놀림을 당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의 글자도 원래 있었어요. '男+女+男'는 '사내가 계집 희롱할 요'자입니다. 잘 아셨지요? 제 이야기 듣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하나 들썩은 반드시 들게 마련입니다.

'마음 삼'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나왔군요. 하여튼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 산'의 '기운 달에 삼형제 별 뜬 골짜기'는 결국 '마음 산'의 '마음 골짜기'라는 뜻이 되네요. 결국 천고의 비밀은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결국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거나, 모든 것과 독립된 별편의 실제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음은 물질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있지도 않고 세상의 모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제를 모른 척하고 오직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는 방식은 참 위험하죠. 경제적인 문제 등 실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마음먹기 달렸어"하고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문제 눈감고 마치 최면술을 걸 듯이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은 언제나 마음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아무튼 원숭이 왕, 나무꾼에게 들었던 대로, 영특하게도 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구나 싶은 곳에 도착하니 기상도 맑은 동자가 마중을 하네요. 원숭이 왕은 점잖게 스승이 계시냐고 물었고, 동자는 "스승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대답하는 광경, 그 모습을 읊은 시가 있네요.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을 캐러가셨다네.  
只在此山中 이산 속에 계시기는 하지만  
雲深不知處 구름이 깊어 계신 곳 알 수 없네.  
\*이 시는 가도(賈島)라는 시인의 '운자를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다(尋隱者不遇)라는 시입니다.

본래 이야기에서도 동자가 미리 스승의 명을 받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신통한 것을 보니 스승이 도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원숭이 왕이 보통 원숭이가 아닌 것도 틀림없으니, 비보통(非普通) 스승과 비보통 제자의 만남! 이 정도의 무대 장치는 기본이겠지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무대장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예지력은 기본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자신에 대한 집착과 물욕을 벗어난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가 드러나고, 그 이치에 따르는 만물의 변화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존재에 대해 감응을 일으키고, 그런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런 일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그런 초능력 자체를 욕심내서 구하려 한다면, 그건 어떤 남이 갖지 못한 물건을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심일 겁니다. 그런 탐심으로 구해 얻는 초능력은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위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초능력 없으니까 괜히 초능력 무시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래봐도 EBS에서 <주역>을 강의한 사람입니다. <주역>이 미래를 짐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 봐도 상당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백년 안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지하고 있죠. 하하. 다음에 뵈겠습니다.

##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 뭣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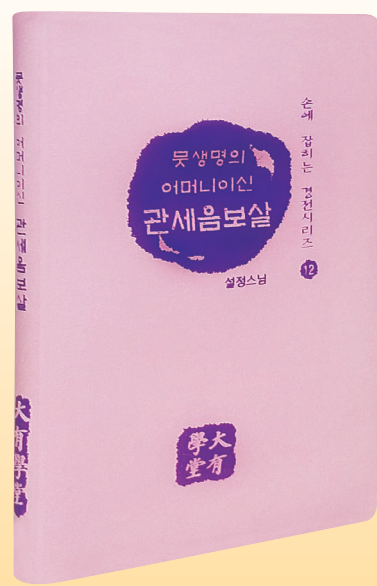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보살행' 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 세상을 구제하십시오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피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 천안 대다라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타동사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머니를 보고 "엄마! 나 나 갈게요."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머니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겹집을 톡톡히 찌어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머니 성급하게 찌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머니가 동시에 톡톡·톡톡하고 쪼아야 새생명인,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마찬가지로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이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머니가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지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놀라서 당황하고, 또 그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열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대우학당 | 절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cm x 세로 15.5cm

수석 사덕총림 방장 승원 설정

주문처 02)2249-5630 범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